

말뿐인 '스카이 라인'... 규제력 뒷받침할 조례·지침 개정해야

'경관 고려 도시개발' 가능하려면

2005년부터 2차례 계획 유명무실 市, 심의대상 확대 후속 조치 추진 건설업체·시민 각종 공감대 필요

광주시는 지난 2005년 2020 경관계획, 2014년 2025경관계획 등 지금까지 모두 2차례의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이 실제로 개별적인 도시개발행위 및 건축허가행위,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규제력을 갖지 못하면서 계획에만 그쳤다. 또 조례,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광주시가 2030년을 목표로 세운 광주시경관계획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KLIS)에 탑재해 관리=이번 2030 광주시 경관계획의 핵심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이다. 무등산 주변(3.87km), 영산강 주변(39.38km), 송정역세권 주변(0.22k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1.56km) 등

모두 45.03km 범위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에 경관이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또 경관거점, 연도경관지구 등에서도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경관이이드라인은 경관유도를 위한 일반설계지침, 지역별 주요 경관설계 상세지침, 야간·조명 경관 유도를 위한 일반설계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설계지침에서는 산지 및 구릉, 수변, 도심, 저층 주거지, 고층주거지, 공업지 등의 경관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건축 등 개발 시 자연경관의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간선축, 간선도로의 도로변, 공개공지, 보행공간 등의 경관설계지침, 이미 조성된 고밀주거지의 경관자원화 및 신규 개발 고밀주거지의 경관 형성 지침, 일반저층주거지 경관 형성 지침, 옥외광고물 경관 지침 등도 포함됐다.

◇'경관 고려 없는 도시개발 없다' 원칙 후속조치 뒤따라야=광주시는 이번 2030 경관계획을 통해 "경관 고려 없는 도시개발 없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토지소유주, 건축주,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개발

■ 2030 광주시 경관계획 4개 중점관리구역·7개 연도경관지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지역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경관에 대한 분명한 보존 및 유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이유다.

시는 우선 이번 경관계획을 통해 도시골격을 형성

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면서 도로변의 시가화가 진행중인 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도경관지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경관지구의 세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현재 경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이 심의 대상이다. 시는 이를 도로·철도시설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은 50억원 이상, 자전거이용·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등 단일사업 5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경관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현재 경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광주시 경관조례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현재 경관지구 내는 3층 이상 건축물,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 송정역세권, 무등산 녹지, 영산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운데 영산강중점경관 구역 내 3층, 기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도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새해엔 마음 속에 자화상을 그려보자



(210) 얼굴



노먼 로크웰 작 '세 명이 있는 자화상' (1960년)

지난 연말 주변에 답답한 일이 있어 사주를 보러갔다. 그동안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주, 토정비결, 타로점 등으로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들여다보는 일을 꺼렸는데, 참 심란하긴 했으나 보다. 때마침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선, 스승, 독서, 기도, 명상, 자기 사주 알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친구의 조언도 등 떠밀었다. 사실, 자기 사주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아는 것이 아닐까.

자기를 알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할수록 자신을 그리는 화가가 더욱 위대해 보인다.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렸고 내면까지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의 화폭을 탄생시킨 빈센트 반 고흐, 80점이 넘는 자화상으로 자서전을 남긴 렘브란트 등 자화상과 함께 떠오르는 화가들의 사연이 더 극적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사랑했던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로 유명한 노먼 로크웰(1894~1978)의 '세 명이 있는 자화상'(1960년 작)은 작가가 자화상을 작업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보통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시선을 유머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다. 화면 앞에는 뒷모습만 보인 채 거울을 들여다보는 인물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는데 캔버스 속 인물의 표정이 더 밝고, 파이프를 문 모습도 한결 근사해지고, 쓰고 있던 안경은 아예 사라졌다. 안경 쓴 개병한 인상이 멋진 인물로 미화된 것을 보며 때로 우리를 자신도 스스로를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이상화시키곤 하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된다.

화면 오른쪽에는 작가가 존경했던 뒤러, 렘브란트, 반 고흐, 피카소의 자화상이 원작과 똑같이 그려져 붙여져 있다. 화가들의 여러 자화상을 보면서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담은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포리부장·미술사박사〉

설 밥상에 '통합신당' 올린다... 국민-바른 '통추협' 출범

신설합당 통합 밑그림 완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는 2월 내에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완료하는 데 노력하기로 3일 합의하는 등 합당 설계 절차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국민의당의 이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및 정운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추협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1시간가량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고, 구시대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양당의 단순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방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신설합당이란 새 당을 만든 뒤 이 신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의원들의 당적도 그대로 승계되는 데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영입인사 등 새로운 인물이 신당 창당과 동시에 합류하기에도 알맞은 방식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통추협은 "양당 당원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월 이내에 통합 완료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당에 공동 실무지원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구체적인 합당 시점을 설날(2월15일) 전 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2월9일) 전으로 검토하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 출범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태규·이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 전에 합당해야 올림픽 이슈에 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설날 전에 합당해야 설 밥상에 '통합신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양당 내부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합당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일 출범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통추협은 일주일 정도 더 운영된 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로 업무를 넘길 전망이다. 통추위는 통추협이 마련한 합당 뼈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각각 신당 창당 결의를 위한 임시 전당대회와 당원대표자회의의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합당을 결의하면 각 당은 소별 절차를 거쳐, 제3차에서 신설 합당을 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 송도건설

SONGD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